

서구건축 거꾸로 보기

An Alternative Look on Foreign Architecture

김병윤 / 백제예술전문대 교수
by Kim Byung-Youn

변화의 계절

유달리 깊은 어둠과 우물이 다가와 한해를 마감하면서 많은 일들을 돌이켜 보게 했으며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새벽을 기다리게 된다.

서양이거나 동양이거나 할 것 없이 속알이는 다 있었을 것이나 애석하게 생각되는 일은 이태리 합리주의 건축가로 우리시대의 합리주의 건축을 대표했다고 생각되는 건축가 Aldo Rossi를 잃은 것이다. 그의 죽음은 일상적인 아쉬움에 앞서 시대의 변동과 자리가 전환되는 바깥의 역사, 즉 변화의 계절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가 남긴 건축도 건축이지만 이 시대의 특히, 유럽의 합리주의 사고를 기반으로 다진 유럽의 건축관이 바로 그의 건축이 아니었나 싶다. Le Corbusier와 James Stirling의 죽음 이후 찾아온 Aldo Rossi의 죽음은 많은 합리주의 건축의 지지자들에게 거장을 잃은 아쉬움을 갖게 하였다. 이제 건축가 알도 로시는 갔지만 면면히 흐르는 그의 빛나는 정신을 통해 새로운 건축들 속에서 계속 피어나게 되리라 믿으며 그의 훌륭한 건축적 업적에 다시한번 감사하며 애도해 한다.

'폴라톤의 긴 주석', '무의미에 가까운 묘한 웅얼거림', '백색신화' 등의 이 말들은 서양의 철학 역사를 두고 화이트 헤드,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데리다가 내린 간결한 정의들이다. 신학과 철학은 물론 다양한 체계의 학문적 방법으로서 그들의 견고한 인간지성체계를 옹위하고 있는 서구의 의식은 그 윤곽을 해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며 많은 분야로 확산 비대해져감을 느낀다. 서구의 건축은 이처럼 비대한 구성을 지닌 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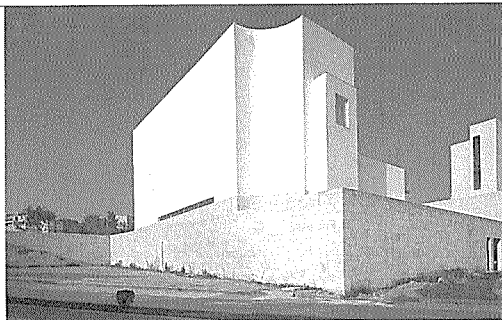
체계와 병합하여 다양한 건축가 개별적 실험과 함께 공통적으로 고민해 오던 많은 과제들을 젊은 건축가들에게 던지며 새로운 담론을 구축하고 신구의 환경속에서 변화의 실행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른바 변화를 추구하되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는 지혜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PALIMPSEST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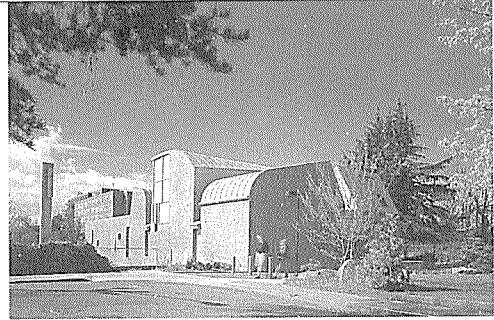
건축에서의 진지함은 주로 미니멀리스트의 건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법하다. 생각하기 쉬운 발상으로 최소한의 제한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의 진지함이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극도로 절제된 형식미학을 바탕으로 내용을 담지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는 좀다른 태도로 형식성과 수사력이 강한 건축을 들여다보면 쉽게 미국의 Frank Gerry 작품을 떠올릴 수 있다. 건축의 형태 자체가 매우 프로그램적이면서 전체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게 읽혀진다. 이 얘기는 그의 건축에선 건축의 전체 형태가 가지는 표현성과 묘사적 인상이 매우 중요하게 보여야 하는 것이다. 앞서는 매우 무표정하고 외형상 인상을 수식하고 있지 않는 채주어 보이는 합리주의 건축에 대해서 말했는데 아주 다른 현상이 거꾸로 서로를 보고 있다.

거리의 최근작인 체코의 국립네덜란드관이 바로 이야기의 대상이다. 체코 프라하 블타바강변에 들어선 이 건물은 매우 인상적이다. 이유는 두명의 헐리웃 뮤지컬 배우(프레드와 진저)의 외형을 건축으로 구현한 발상에서 이미 극적이며 유머스런 풍자를 꺾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오래 전에 영국의 건축가 Terry Farrell이 TV AM 스튜디오에서 아침 식사에 오르는 계란과 받침그릇「Egg Cup」을 건축에 사용한 적이 있었다. 물론 거리의 피쉬 레스토랑 랑에선 요동치는 물고기가, 또한 그의 우주항공박물관에선 우주선이 사용되어져 있지만 이번에 체코의 국립네덜란드관은 매우 지성적인 균형과 모던의 합류가 이루어 낸 기본적 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원형이 춤추듯 동적인 순간의 정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잡지의 표지에선 프레드와 진저의 모습에 건물의 입면을 겹쳐서 보여주는데 그들의 포즈가 다른 것이었다



마르코드 카나베제의 교회와 교구센터(알바로 시자 작)



시애틀대학 성 이그나티우스 예배당(워싱턴주 시애틀, 1994~97)

면 건축의 형태가 달라져야 하는 프로그램상의 보편성을 벗어나는 유희적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체코의 전통적인 맥락이나 지역의 기억 등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그 표피적 유희는 대담하게 인상적 은유를 지닌 채 상징화되고 있는 것이다. 표피라고 얘기함에서 우리는 또하나의 주제로 포장디자인의 문제를 건축에 관련하여 상기한다.

프라하의 블타바강에서 다시 예전의 타운을 보게되면 프래드와 진저의 웃음을 잊게 해주는 무력한 지나간 궤적이 가득한 것이 그들의 건축이라면 건축은 자체의 문제와 도시라는 간격의 문제를 안고 곤혹스럽게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도시를 기반으로한 '재생'이란 주제는 이미 상당한 위상을 지닌 실천어로 자리하지 않았나 싶다. 기본개념은 역사적 건축의 재인식과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한 건축행위를 지향하고자 하는 태도에서인데 옹도면에서 능력을 잃고 무기력해진 많은 옛건축들을 회상하고 재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에게 다시 쓰여지는 생명력을 부여함에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백년된 주택을 개수하면서 Elizabeth Diller & Ricardo Scofidio라는 건축가들이 내부에 여러 번 덧칠로 재생의 흔적을 지닌 모습을 두고 거듭 쓰는 의미로 사용한 데에서 인용한 용어 '펠름세스트'는 거듭되는 재생과 행위의 의미를 지닌다. 이미 파리의 오르세아미유지엄 등 많은 재건축의 경험과 실행력을 자랑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한 회사는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옛 초코렛공장을 개조하여 새 본부건물로 사용하고 있어 화제다. 바로 잘 알려진 네슬레사의 새 본부건물은 철제의 유기적인 사용에서 보이는 옛 건축의 흔적을 바탕으로 유리 와 철제의 기하학적 증축부분과 대조를 이루면서 새로운 사무공간의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미국의 Eric Owen Moss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래된 가스저장소의 내부에다 새로운 요소 삽입으로 가스저장소를 재활용하는 실험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분명 건축은 물론이거니와 도시에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한 옛 요새는 수족관으로 탈바꿈했고, 이외에도 많은 지난 시절의 건축물들이 새롭게 바뀌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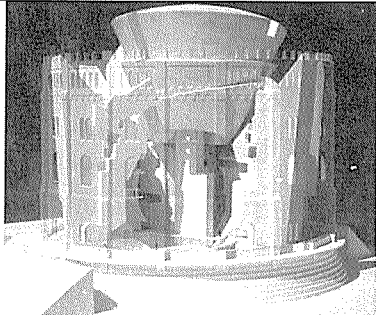
좀 알려진 예들은 Claus와Kaan의 암스테르담 주거개축, Louis Kloister의 노르웨이 예르솔라교회 재계획, 프

랑스 국립도서관 현상설계당선자로 잘 알려진 도미니코 페로의 의회 개축, Christian de portzamparc 의 place Nationale공 동주거 등은 도시적 맥락을 탐구하여 새로운 형식미학을 구현함으로써 시대적으로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진 지난날 특히 산업 사회에서 파급된 여러 공공시설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없애지 않고 옛 모습을 기념하면서 용도를 재구축 하는 지혜를 보여주 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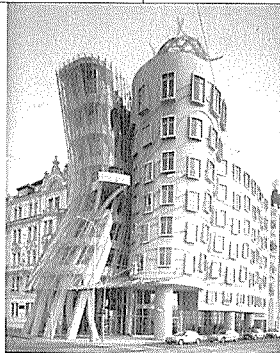
이성과 유기적 합류

이제 고인이 된 이태리의 건축가 알도 로시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건축가가 또 있다면, 그보다는 훨씬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숨겨진 강성을 지닌 건축가로 포르투갈의 거장 알바로 시자(Alvaro Siza)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건축은 한마디로 매우 합리적인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알도 로시와 같은 영웅시를 찾을 수 없고 유기적이면서도 표현적이지 않은 순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차분한 농부의 따뜻함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성과 유기적 합류하는 공존의 체계 속에서 그의 건축은 항상 단순하며 변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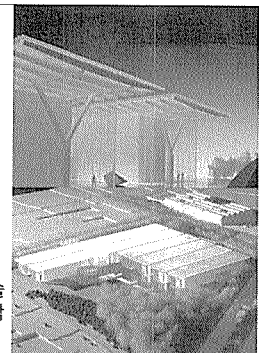
「Thinking by means of drawing」- 많은 드로잉을 통해서 일상적 사고의 언저리로부터 정점으로 다가 가는 작가의 진지한 작업형성과정을 지면에서 가까이서 보게 되었다. 지난해 일본의 어느 건축잡지(「건축문화」97년 5월호)를 통해 소개된 알바로 시자의 4편의 수상과 최신작인 마르코 드 카나베제스 교회와 교구센터에서 이러한 그의 작품에 대한 열정과 작품과 드로잉의 관계 및 해석을 확인할 기회를 갖는다. 지구의 반대편쯤에서 파급되어 오는 잔잔하고 명확한 건축의 정수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바로 포르투갈의 건축가 알바로 시자의 작품과 그의 작업과정을 통해서 전 생애를 걸쳐 변함없이 작업에 진득이 몰두하는 건축인의 참다운 모습 하나를 더욱 확 인하게 되는 것이다. 화려함과 혁신 이런 어휘들은 어딘지 그의 건축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지역의 기억에 몰두하고 있는 건축가에 대해 세계는 거꾸로 그 건축가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아무 래도 우리 시대에 잘 어울리는 교훈을 그는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영웅적이지 않은 매우 평이한 문체가 지



오스트리아 빈 가스저장소 재사용 계획안(Eric Owen Moss작)



체코 프라하의 국립
네덜란드관(프랑크
게리작)



포트워스 현대미술
관 설계경기 당선작
(안도타다오 작)

닌 감동을 그의 건축에서 보게 된다.

지역문화와 건축의 개방성

「Towards a new MoMA」, 이 제목은 일찍이 1929년 문을 연 뉴욕의 현대미술이 지금 뭔가 변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음 아난 미술관 증개축을 위한 설계경기의 타이틀이다. 68년의 역사를 지닌 뉴욕의 현대미술관은 서측의 53번가로 점진적 증축이 되어 왔으며 지난 84년에도 시저 펠리에 의해 재계획이 이루어졌었고 그후 45번가의 도셋호텔과 두체의 갈색 타운하우스를 확보함으로써 한블럭 폭을 지닌 증축을 하게 이른 것이다. 이를 위해 미술관측에선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10명의 건축가를 선임, 우선 서렛(Charrette)라고 하는 전문집단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토의하고 뮤지엄이 지닌 재구축을 위한 제반 전략을 토로하여 가능한 기준과 설계의 바탕이 이루어 지도록 했다.

초대된 건축가 10인은 일정한 설계경기의 경과결과로 11×17인치 크기의 상자안에 제안의 모든 것을 담아 제출하였다. 일본의 이토 도요, 유럽의 렘 콜하스 등 잘 알려진 건축가 10인중에서 결선 선발은 Bernard Tschumi, Herzog & De Mearon, Yosio Taniguchi 등 3팀이 선정되었다. 역사적인 유적이긴 하지만 증축을 놓고 건축의 이슈를 만들어 가는 미술관의 배려와 세심한 운영으로 세계의 관심을 끌어내는 지혜가 이채롭다.

영국의 국립현대미술관증축 이후 버금가는 건축계의 이슈라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서 보면 MoMA는 역사적으로 건축을 잘 이용해서 그들의 증개축을 세계적 관심사로 만들었고 다른 모든 예비 크라이언트(Client)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대중이 건축에 친화력을 갖고 또한 건축하는 일이 결코 건조하지 않은 문화적 행사가 됨을 깨닫게 해준 예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또 하나의 진중한 미술관 설계경기가 있었는데, 텍사스의 Fortworth의 현대미술관 설계경기이다. 이 미술관의 대지는 거장 루이스 칸의 대표작중 하나인 캄벨 미술관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중압감이 무거운 대지였다. 당선자는 많은 미국의 건축가를 뒤로하고 의외로 일본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로 선정되었다. 최근에는 다소 쇠잔한 느낌을 갖게 했는데 다시 그의 건축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당선안은 '예술의 숲'이라는 마치 그의 작품들이 '물의 교회'처럼 이름이 있듯이 주제를 가지고 있다. 제안은 매우 단순한 6열의 긴 장축구조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접한 Kahn의 미술관과 사이에 물과 녹지로 그 간극을 조절하고 있다. 지역과 시대에 따른 매우 감각적인 축조방식의 건축과 실험성을 동반한 해체의 동류 위선상의 건축들을 제치고 근대성을 바탕으로 완고함이 승리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동시에 건축의 해석에 있어 지역문화에 건축이 직설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점, 개방적 현실성을 보여준 예로서도 크게 기억해야 할 일이었다고 본다.

간과한 문제의 치유

유럽의 젊은 건축가가 거의 동시에 주목하는 현상공모전이 있는데 1970년에 시작된 'EUROPA-N(EURO+PAN)Competition'이 그것이다. 프랑스의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현상공모전으로 출발해서 새로운 건축과 재건축을 제시토록 해서 실행으로 옮기는 매우 현실적인 현상공모전이 확대된 것이다. 유러피안을 상징하는 Euro를 접두어로 파생된 공모전이 네번째 행사를 가졌다. 지난 3회의 주제는 'At Home in the City'라는 도시주거의 문제를 다뤘고 4회에서는 좀더 미분화된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Urban Sites'라는 도시 스케일의, 그러나 작게는 도시의 틈과 같은 스케일도 고려한 주제가 선정되어 전 유럽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유럽의 65개 도시(Town)가 선정되었으며 18개국에서 총 4천5백명이 등록했고, 이중 2천4백32개팀이라는 경이적인 숫자의 참가안이 출품되었다. 참여한 팀은 다른 국가를 포함하여 각팀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 제안하게 되는데 London 등 신청자가 없는 4개 지역을 제외한 61개지역에서 총 우승(Winner) 51개팀, 준우승(Runner Up) 59개팀의 젊은 건축가팀이 탄생되었다. 결과를 판가름하는데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공모전인 만큼 7명의 비평가가 초대되었으며 지역간의 상이한 문화적 특성을 해독함에 심혈을 기울였다.

몇 해전 분당에 주택전람회를 위해 40대 이상의 건축가들을 위주로 선정한 것이 기억이 난다. 대조적으로 European은 젊은 건축가들 위주로 진행되며 기존의 건축에 대해, 새로운 공공장소에 대해, 또한 소형의 문화적 중심체와 상업지역의 창출에 대해서 제안토록 요구되었으며 세밀하게 주어진 주제는 'To Position, To Transform, To Inherit, To Bind' 등의 전통 지방도시와 그 주변에 달라진 현대의 모습 사이에서 달라진 새로운 제안을 기대하는 것이다.

핀란드에서 키프로스까지 실로 유럽의 전지역을 대상으로 전개된 설계공모전은 도심지 외곽에서 비자의 적으로 생성된 간격들에 대해서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안고 공공공간의 여백과 독립적이며 독자적인 건축들 도시 기반 시설 구축 등의 전반적인 수정안을 제시토록 요구한 것이다. 주된 목표는 현대성을 부여한 새로운 주거환경(Residential Landscape)을 확장 제안하는 것이다.

대단위의 표현적인 주거개발이 금세기의 전 후반에 폭발적으로 급증해서 평균적인 삶의 질과 형태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나 미세하나마 간과한 많은 사안들이 발생되었기에 그들의 치유에 나섰다. 이것이 이번 설계공모전이 갖는 의의인

것이다. 주거와 일상생활, 자연과 식생, 밀집지역과 주거지역의 격리감, 변두리 지역의 주거지역 현대화 등이 참여한 건축가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던 주제로 결과는 매우 치밀한 형태에 대한 제안보다는 도시과정상의 제안이 주요하게 등장하였다. 개별적인 건축가가 더는 도시계획자로 매직핸드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계획안은 비록 이상이지만 그 이상은 현실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최소한의 게임의 법칙이나 문화적 숙성을 지녀야 함이 기대된 것이다.

이와 같은 공모전의 성격상 사실 매우 겨냥하기 어렵고 진행하기도 어려운 공모전이데 전 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European의 기본개념은 젊은 건축가들의 사고를 통해서 유럽인 모두의 생활상을 다시 재고 해보는 기회와 새로운 제안으로 현실성을 바탕으로 실제 실무차원의 연계실행 과정에서 실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담론의 장을 만든다는 데에 커다란 의미를 둔다. 훌륭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당선안은 수년 내로 절반 정도가 어떠한 형태로든 현실적인 결과가 돌아오고 있음이 이 공모전이 다른 공모전과 다른 점이기도 하다. 이와 비교하여 국내에도 건축공모전이 많은데 모두가 건축훈련과정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섬세하고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의견이 진지하게 교환되는 현실적 체계를 지닌 아이디어 공모전이 보여준 예에서 유럽에만 그치지 않고 전지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열정, 규율

해외의 저널을 통해 소개된 많은 작품중에서 유달리 관심을 끌었던 한 작품을 선정해 보았다.

스티븐 홀(Steven Holl)이 설계한 '빛의 쉼'이라 제목의 워싱턴주 시애틀대학의 예수회 예배당(St. Ignatius Chapel)은 스티븐 홀의 근작 종교건축 가운데 하나다. 이 예배당은 종교건축의 고정관념을 떨쳐버린 예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그의 개념스케치에서 보여주듯이 빛의 문제가 전체상 매우 중요한 주제로 강한 내재적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각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빛의 천창들은 하나 하나가 다소 알토의 건축에서 보인 요소와도 같은 모습을 지닌 채 다양하게 숨결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마치 여러 개의 관이 약기처럼 외기를 호흡이라도 하듯 하늘에 뻗어 있고 그들은 생김과 색깔을 달리하는 생명체처럼 특이한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이 땅으로 뻗어 육신을 지탱한다면 이 예배당의 생명은 하늘로 뻗은 그 생명체와 같은 그 관들로 인해 살아 있고자 함을 보여주는 듯하다. 좀더 현실적으로 내부공간을 보면 단아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신비에 대해서도, 강론에 대해서도 사실 아랑곳 아니할 고품위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무료함도, 없어서 좋을 장식도 없는 내부공간은 외부로부터 뿜어 나오는 빛의 호흡을 만끽하고 있다. 그 빛의 색깔은 강렬하지 않아 건축이 미술

적 느낌에 지배되지 않는 숭엄함을 보여준다. 부드러움과 축조적(Tectonic)인 규율-이는 미술적감성이 건축의 조합적 규칙에 넘치지 않는-인내와 숙련의 도가 몸에 밴 건축가의 재능이 곳곳에 가득히 담겨져 있다. 평면과 단면을 번갈아 보다 보면 스케치에서 사람의 모습이 다가와 겹쳐지는 일바로 시자의 것처럼 매우 경직된 직육면체의 체적이 완벽하게 건축이 되는 그래서 그 공간들을 읽어 내는 것이 종내 쉽지 않은 그러한 면모를 보게도 된다. 평면은 마치 원룸의 공간안에 여러가지의 기능들을 수용하고 있더라도 하듯 복잡하지도 매끄럽지도 않아 보인다. 규율이 살아 있어 열정에 합류했다는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를 일이나 이 엄정한 질서와 건축의 체형적 실현이 이루어 낸 결정은 이를 합법적으로 증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늘에는 오직 하늘빛이 있을 뿐이나 성이나 시오의 하늘은 여러가지의 색으로 변한다. 이 영탄이 언어적 영탄이 아닌 것이 또한 이나시오 예배당의 진실이자 현실이기 때문이다. 빛을 호흡하는 관(管)들이 밤에는 빛을, 그것도 색을 담은 빛을 외부로 토해 낸다. 그래서 이나시오의 밤하늘은 한가지 색이 아니다.

모처럼 좋은 건축을 볼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감히 더불어 떠오른 생각은 어떠한 이념과 기(技)·예(藝)도 건축을 넘어서 건축에 결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관용과 수용의 역사인식

외지의 것을 보고 거꾸로 나를 보게 될때의 생각은 사실하고 싶지 않다. 초라해서도 무지해서도 가난해서도 아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미국, 미국하면서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혼을 내면서도 속으로 끓어 오르는 불덩이 같은 것을 느낀다. 크게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란 것을 깨우칠만한 나이이기도 하지만 언제부터가 뭔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아닌 남이 가지고 있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이미 우리의 생활 자체가 지배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들의 말을 일찍이 배우고 습성을 익혀 차별을 두고자 함에서 더욱 열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성이나 정체성의 논의도 차별의 폭을 키우는 편제의 과정이라면 무조건 가르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도 아울러 밝혀 두고 싶다. 나를 알고자 함에서 엮지 결코 그것을 크게 보고자 함이 아니었던 것임을 거꾸로 깨닫는다면 관용과 수용의 우리건축역사는 이제 다시 쓰면서 점진적 면모를 지니리라 여긴다.

얘기를 마치면서 비판적으로 보려 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읽혀졌는지 의문이다.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이 아니었으면 싶다.